

KIA 9회말 짜릿한 끝내기…집중력 빛났다

프로야구 시범경기 4-3 승

개막전 맞붙을 삼성에 2승

KIA 타이거즈가 ‘미리 보는 개막전’에서 완승을 거뒀다.

KIA 타이즈가 22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시범경기에서 4-3 끝내기 승을 거뒀다. 오는 31일 대구에서 시즌첫승을 놓고 만나게 된 두 팀의 시범경기 대결은 2승을 한 KIA의 승리로 끝났다.

전날 김윤동을 시작으로 심동섭-박지훈-한승혁-임창용으로 이어지는 막강 마운드를 가동하며 5-1 승리를 거뒀던 KIA는 두 번째 대결에서는 집중력 싸움에서 이겼다.

1회말 바나디나와 2번타자 나지완의 연속 볼넷으로 무사 1·2루를 만든 KIA는 김주천의 좌전안타로 만루까지 채우며 득점 기회를 잡았다. 그러나 ‘절친’ 대결로 눈길을 끌었던 최형우와 삼성 선발 장원삼의 맞대결에서 장원삼이 웃었다.

최형우의 타구가 투수 앞으로 향했고, 홈에 들어오던 바나디나가 아웃됐다. 그리고 1루에서도 최형우가 아웃이 되면서 병살타가 기록됐다.

무사 만루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 KIA는 2회말 실점을 했다. 2회 1사에서 선발 홍건희가 이원석과 김현근, 최경철에 연속 안타를 허용하면 1점을 내줬다. 이어 정병근의 3루수 앞 땅볼 때 스타트를 끊은 주자들이 협살에 걸리면서 추가 실점 위기는 넘겼다.

매 이닝 주자를 내보냈던 홍건희가 4회 초에도 선두타자 이승엽에게 좌전안타를 맞았다. 이원석의 안타와 김현근의 2루타 그리고 최경철의 희생플라이가 이어지면



22일 오후 1시 광주 KIA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시범경기서 KIA가 9회 최원준의 끝내기 희생플라이에 힘입어 4대 3으로 삼성 라이온즈 역전승을 거뒀다. 경기종료 후 KIA 선수들이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서 점수는 0-3까지 벌어졌다.

6회 뒤늦게 KIA 타선이 움직였다. 최형우가 발목 통증으로 빠지면서 투입된 이준호가 볼넷을 골라 나간 뒤 이병호의 안타가 나왔다. 폭투로 만들어진 1사 2·3루에서 김주현의 타구가 중견수 키를 넘기는 2타점 적시타가 됐다. 김선빈의 적시타까지 더해 KIA는 3-3 동점을 만들었다.

팽팽하던 9회 마지막 승부는 집중력에서 갈렸다.

전날에 이어 한승혁이 다시 한번 마운드를 투입됐다. 이번 시범경기 들어 3경기에서 3이닝 퍼펙트 행진을 했던 한승혁이 ‘옛 동료’ 강한울과 9구까지 가는 승부 끝에 첫 안타를 허용했다. 그러나 한승혁은 타이밍을 뺏는 견제로 강한울을 벤치로 돌려보냈다. 이어 이영욱과도 11구까지 가는 승부를 펼친 한승혁이 첫 볼넷을 허용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견제사로 한승혁이 두 번째 아웃카운트를 만들었다. 한승혁은 백상원을 우익수 플라이로 돌려세우며 연투 테스트에서도 괜찮은 점수를 받

았다. 이날 한승혁의 직구 최고 기록은 157km를 찍었다. 견제사로 분위기를 끌고 온 KIA는 9회말 역전극을 연출했다. 1사에서 홍재호가 우중간을 가르는 3루타로 끝내기 발판을 놓았다. 그리고 최원준이 중견수 희생플라이를 날리며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한편 시범경기 홈 8연전 일정을 끝낸 KIA는 23·24일 대전에서 이번 시범경기 처음이자 마지막 원정경기를 치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었다. 이날 한승혁의 직구 최고 기록은 157km를 찍었다.

견제사로 분위기를 끌고 온 KIA는 9회말 역전극을 연출했다. 1사에서 홍재호가 우중간을 가르는 3루타로 끝내기 발판을 놓았다. 그리고 최원준이 중견수 희생플라이를 날리며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한편 시범경기 홈 8연전 일정을 끝낸 KIA는 23·24일 대전에서 이번 시범경기 처음이자 마지막 원정경기를 치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설레는 첫 등판 “포수밖에 안 보였다”

시범경기서 프로 첫 무대…KIA 루키 유승철·박진태 선수

유, kt전 1이닝 3피안타 1실점…“선배들과 한무대 행복”

박, 4경기 3.1이닝 무실점 후투…“자신감 가지고 던지겠다”

“신기했다”는 막내와 “나도 모르게 몸이 움직였다”는 루키.

KIA 타이거즈의 유승철과 박진태는 시범경기를 통해서 처음 프로 마운드를 밟은 신인 투수들이다.

효천고 출신의 유승철은 우선지명을 통해 KIA 유니폼을 입은 고졸 신인이다. 시범경기 선수단에서 뛰고 있지만 마운드 보다는 볼펜에서 더 많은 공을 던지고 있다.

지난 16일 kt와의 경기가 첫 등판이자 유일한 등판. 결과는 1이닝 3피안타 1실점이었다. 이후에는 볼펜에서 바꾼 투구폼 적응에 공을 들이고 있다. 유승철은 “지금 투구폼에 적응하는 단계라서 완벽하지는 않다. 처음 마운드에 올랐을 때는 너무 긴장했고 정신이 없었다. 신기하기도 했다”고 첫 등판에 대해 이야기했다.

유승철을 신기하게 만든 것은 이제는 동료가 된 정정환 스타선수들이다.

유승철은 “처음에는 포수 밖에 안 보였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앞 옆에 안치홍,

김선빈 선배님이 있었다. 조금 있다가 외야도 눈에 들어왔는데 김주천, 최형우 선배님이 서 계셨다. 내가 이 선배들과 야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신기했다”고 웃었다.

박진태는 성남고와 단국대를 거쳐 KIA에 입단한 대졸 루키다. 유승철보다는 경력이 더 많은 형. 유승철이 대만 퓨처스 캠프에서 차근차근 프로 데뷔 준비를 한 것이 비해 박진태는 지난 겨울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캠프에서 뛰며 강도 높게 프로 무대를 미리 경험했다.

빠른 직구가 박진태의 가장 큰 장점으로 박준표의 군입대로 비어있는 사이드암 자리를 노리는 유망주다. 기대를 받고 있는 선수라고는 하지만 신인은 신인이다.

14일 두산전 7-4로 앞서 8회 2사3루에서 첫 등판을 한 그는 프로 첫 아웃카운트를 잡은 뒤 선배들에게 놀림을 받았다.

박진태는 “지는 경기에서 처음 공을 던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7-4



유승철



박진태

로 팀이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등판을 하게 됐다. 아무 생각 없이 아웃카운트만 잡자는 생각을 했고, 실점 없이 막게 된 뒤 나도 모르게 글러브를 치게 됐다. 덕아웃에 왔더니 선배들이 WBC에서 슬러라도 했느냐고 놀리더라”며 웃었다.

긴장했던 첫 등판 이후 박진태는 22일 삼성전까지 3.1이닝 무실점의 후투를 하고 있다.

그는 “캠프에서 이것저것 해보려다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너무 코너워크를 의식하고 공을 세게 던지려고만 했는데 지금은 자신있게 편하게 던지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직구 스피드가 좋으니까 직구로 바로 승부를 하라고 말씀들도 하시고 그렇게 할 생각이다. 자신감 있게 과감한 승부를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괴물 부활…류현진 4이닝 2탈삼진 무실점

ML 시범경기 밀워키전 완벽투…첫 안타에 타점까지

류현진(30·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세 번째 시범경기 등판에서 ‘괴물투수’의 위용을 되찾는 완벽한 투구를 펼쳤다.

류현진은 22일 2017 메이저리그 시범경기에서 밀워키 브루어스를 상대로 선발 등판, 4이닝 1피안타 2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타석에서도 첫 안타에 타점까지 생산하며 흥집을 데우는 활약을 했다.

KBO리그에서 최고의 타자로 활약하다 메이저리그로 돌아온 밀워키 4번 타자 에릭 테임즈와 맞대결에서도 두 차례 모두 류현진이 승리했다.

류현진은 4회말 타자로서 타점까지 뽑아냈다. 2사 1·3루에서 중전 적시타로 팀에 선취점을 안겼다. 팀은 4-5로 패했지만 류현진의 패투는 이날 시범경기 최대 성과다.

류현진은 5일 간격으로 시범경기에 세 차례 선발 등판해 9이닝 동안 단 1점만 허용했다.

류현진은 지난 2년간 어깨, 팔꿈치 수술로 재활의 시간을 보냈고, 그사이 선발 자리도 위태로워졌다. 그러나 위력을 되찾아는 투구 내용으로 올 시즌 활약 기대와 자신감을 한껏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



우승 간절한 두 팀 챔프전서 딱 만났네

대한항공·현대캐피탈 프로배구 챔피언 결정전

우승에 대한 갈증이 큰 두 남자가 챔피언 트로피를 앞에 두고 만난다.

박기원(66) 감독이 이끄는 정규리그 1위 팀 대한항공과 최태웅(41) 감독이 2시즌째 지휘하는 2위 현대캐피탈이 25일부터 5전3승제 NH농협 프로배구 2016-2017 V리그 남자부 챔피언결정전을 치른다.

두 사령탑 모두 “우승이 간절하다”고 했다.

박기원 감독은 “한국에서의 우승은 내 배구 인생 마지막 퍼즐”이라고 했다. 이탈리아, 이란에서 감독으로 활동하고 한국 국가대표를 오래 맡은 베테랑 사령탑 박 감독이지만 한국에서는 우승한 적이 없다.

최태웅 감독은 “나와 선수들 모두 간절하다.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결국 좌절했던 현대캐피탈이 위기에 강한 팀으로 거듭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 감독은 처음 사령탑에 오른 지난 시즌, 정규리그 1위에 오르기도 챔피언전에서 OK저축은행에 1승 3패로 무릎 꿇었다.

구단도 우승에 목마르다. 대한항공은 2010-2011시즌부터 2012-2013시즌까지 3시즌 연속 챔피언전에 진출했지만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다. 현대캐피탈은 2005-2006, 2006-2007시즌 연속해서 정상에 올랐으나 이후 ‘만년 2위’의 설움을 겪었다.

대한항공은 창단 후 처음, 현대캐피

탈은 10년 만에 우승을 노린다.

양 팀 모두 센터 한선수(대한항공), 노재욱(현대캐피탈)을 중심으로 빠르고 정교한 배구를 펼친다. 속공과 킥오피를 자주 활용하는 경기 운영도 비슷하다.

정규리그에서는 대한항공이 현대캐피탈에 4승 2패로 앞섰다. 맞대결 공격 성공률에서 대한항공이 53.92%로 50.94%의 현대캐피탈을 앞섰다.

블로킹 성공(대한항공 세트당 2.33개, 현대캐피탈 2.29개)은 비슷했고, 서브 득점은 현대캐피탈이 세트당 1.43개로 0.81개의 대한항공을 앞섰지만 서브 범실은 현대캐피탈이 많았다. 현대캐피탈은 서브 범실 81개, 대한항공은 63개를 기록했다.

대한항공은 맞아 가스파리니와 김학민 등 힘으로 상대를 누를 공격수를 갖췄다. 여기에 신영수, 정지석, 곽석 등 레프트 자원이 많다. 김형우, 진상현, 진성태, 최석기 등 센터진은 4명 모두 주전 센터이자 백업 센터였다. 박기원 감독은 센터 4명 중 상대에 강하고, 당일 몸 상태가 좋은 선수를 코트에 내보냈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현대캐피탈 외국인 다니엘 갈리치(등록명 대니)는 파괴력이 떨어진다. 하지만 라이트 문성민의 화력이 여전하고, 레프트 박주형·송준호 조합도 상대에 위협을 줄 수 있다. /연합뉴스



‘제 12회 서귀포 칠십리 전국 남녀 궁도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광주 무등정팀. 왼쪽부터 최용균, 이철회, 심영섭, 이동환, 조당현 선수. <광주 무등정 제공>

광주 무등정 공사들 전국 제패

서귀포 칠십리 전국 궁도대회 단체전 우승

광주 무등정 공사들이 전국을 제패했다.

광주시 궁도협회 광주 무등정(사투 최치민)은 지난 18~20일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삼다정에서 열린 ‘제 12회 서귀포 칠십리 전국 남녀 궁도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무등정 최용균·이철회·심영섭·이동환·조당현 선수가 토너먼트전으로 치러진 단체전에 출전해 결승전에서 경기도 수원 연무정팀을 17-12로 꺾고 우승기를 차지했다. 또한 개인전 장년부에서 최용균 씨가

2위를 차지했으며, 이철회씨와 정순자 씨가 장년부와 여자부 4위를 각각 기록했다.

최치민 사투는 “이번 제주 우승으로 4년동안 모두 20차례 전국대회 우승을 기록했다”면서 “사원(射員)들이 ‘전국 정(亭)’ 가운데 으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경쟁하며 실력을 연마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궁도협회(회장 선계일)는 5·18 광주 민중항쟁 37주년을 맞아 5월 중 광주 무등정에서 전국 궁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김지율기자 dok2000@

광주체육중 에어로빅 전국대회 남·여 금메달

광주체육중 남·여 에어로빅 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최강 실력을 뽐내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체육중 송창섭(15·2년)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서울상명대 아트홀에서 열린 ‘제 9회 회장배 전국에어로빅체조대회’ 남중부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송창섭은 지난해 제 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2관왕인 송창섭은 고난도 기술을 구사하며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

였다. 나수아(여·3년), 정재은(여·2년)도 에어로빅 댄스 부분에 참가, 우승했다. 나수아도 제 45회 소년체육대회 금메달 주인공다운 실력을 과시했다. 체육계에서는 동계훈련 기간 흘린 땀과 노력으로 얻어낸 성과로, 올 5월 예정된 제 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앞두고 자신감을 충전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